

<동정자료>

김현미 장관, "신속한 제설 작업 통한 도로·공항 기능 유지" 강조 국토관리청·지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대설 대비 대책 마련 지시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많은 눈과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지방국토관리청, 지방항공청 등 관련 기관에 “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도로와 공항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”을 주문했다.
- 김 장관은 10일 밤 각 도로관리청에 폭설로 출근길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으며,
 - 11일에는 지난 월요일 밤부터 강설이 지속되고 있는 호남지역의 국도관리를 총괄하는 익산지방국토청장에 전화하여 제설 상황과 제설 대응체계 등을 점검하고 “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로제설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“제설현장 작업자들이 피로에 의한 집중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”도 당부하였다.
- 한편, 11일 오전 8시 35분을 기하여 공항 활주로 제설작업을 위해 폐쇄되었던 제주공항은 오전 11시부로 다시 운항을 재개하였으나, 그동안의 항공기 결항으로 인한 체류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임시 항공편 추가 제공 등에 대해 항공사와 협의 중에 있다.
 - 김 장관은 “여행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, 체류객들의 신속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”을 강조하며 “강설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항공기 결항이나 지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”을 지시했다.

- 또한, “체류객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항공기 지연·결항 시 SMS 등으로 관련 내용이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항공사가 철저히 안내해줄 것”도 당부했다.

2018. 1. 11.

국토교통부 대변인